

#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 연구\*

## Acculturation of Immigrant Korean Families in Yanbian and Shenyang/Harbin, China\*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조복희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교수 이귀옥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박혜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원 이주연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Cho, Bokhee  
Kyungsoong University  
*Professor* : Lee, Kwee-Ock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Choi, Hyewon Park  
Kyunghee University  
*Researcher* : Lee, Joo-Ye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Corresponding Author: Joo-Yeon Lee, #409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59-0640 Email: idscot@hanmail.net

\* 이 논문은 2002년,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HM2501, KRF-2003-072-HM2001).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China. A total of 459 Korean-Chinese from Yanbian province, China and 768 Korean-Chinese from the city of Shenyang and Harbin, Chin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asked about their language use during daily conversations and cultural activities using The Cultural Life Style Inventory. Results indicated that overall Korean immigrants in China maintain their ethnic identity, ethnic language and culture.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ir levels of acculturation depending on the area they live and their educational levels. The differences were explained in part by the uniqueness of Yanbian province and a new policy for ethnic minorities in China.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immigrants' demographic variables but also their ecological variables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China.

**주제어(Key Words):** 문화접변(acculturation), 중국 조선족(Korean-Chinese), 지역생태학적 특성(ecological uniqueness), 민족어(ethnic language), 민족문화(ethnic culture)

### 1. 서론

최근 들어 해외교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7월 기준으로 151개국에 565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212만명, 중국 188만명, 일본 64만명,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에 약 52만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외교통상부, 2000). 그 중에서도 중국 내 조선족은 오랜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연변 조선족의 경우 한국 이외의 단일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서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임계순, 2003). 중국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중국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 과거 북한 쪽에 거주한 한민족이 이주한 경우가 많아 교류가 어려운 북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랜 분단의 벽 속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남북한이 더더욱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단절감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문화와 정보교류를 통해 분단의 장벽을 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서도 그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조선족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적응, 존속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환경과 적응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통일이후 남북한은 물론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 등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통합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생활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으로써 그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이주,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로 조선족 자치주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관심이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힘입어 민족집단화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위 민족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 지역의 한인문제와 구분된다. 특히, 중국의 연변지역 조선족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지역의 한인들과는 달리, 소수민족 자치주를 형성하여왔기 때문에 이민국 주류문화에의 동화과정이 다르고, 동화보다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으로 그들의 이민정착 과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윤복남, 1997).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의 문화접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김광정, 1996; 김신일,

1996; 윤복남, 1997; Hurh & Kim, 1984; Lee, 2000; Min, 1995, 1998), 중국 내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박성연, 김미경, 도현심, 2000; 박성연, 도현심, 2001; 조복희, 박태수, 한세영, 2004; Cho, Han, & Lee,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문화적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 대도시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문화적응 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역 생태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적응의 개념: 동화와 문화적응

모든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성원으로서 그들이 사는 주류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은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윌헨던 사회에의 진입으로 인한 초기의 기쁨과 안도, 새 문화에 대한 이상화, 적응과정에서의 혼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문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수용하는 단계를 거친다(Coll & Pachter, 2002).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과거 자신의 민족문화와 새로운 주류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생활하게 된다. 해외 이민자들의 현지사회 적응을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화와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문화적응의 과정을 단일선상에서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에서는 동화(assimilation)를 문화적응이 가장 잘 이루어진 상태로 여긴다. 따라서 문화적응을 '다양한 단계의 동화-문화적 동화, 구조적 동화, 정체감적 동화, 태도의 동화, 행동적 동화-를 거쳐 주류 문화를 완전히 흡수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Gordon, 1978). 문화적응에 대한 단일차원 모델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은 다차원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응(acculturation)의 개념을 소개한다. 다차원적 모델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는 문화적 동화과정이란 아닌, 주류문화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에 따라 끊임없이 양쪽 문화의 요

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Berry, 2002; Buriel, 1993; Patel, Power, & Bhavnagn, 1996). 따라서 문화적응의 개념은 상대집단 문화의 일방적 수용보다는 쌍방간의 상호 문화변동 과정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박성연, 도현심, 2001; Cho, et al., 2005).

문화적응의 수준은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회적 활동, 문화적 행사 그리고 민족에 대한 정체감 등에 의해 측정된다(Phinney, 1990). 이 중 언어변수는 대부분의 문화적응 연구(Harwood, Leyendecker, Carlson, Asencio & Miller, 2002; Phinney, 1990)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어의 습득은 이주사회 속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사용하는 언어 및 가족 외의 사람들과 사용하는 언어, 즐겨보는 신문과 TV, 잡지 등의 언어, 뿐만 아니라 즐겨듣는 음악의 언어는 문화적응에 가장 핵심이 된다(Phinney, 1990). 한편, 이중문화 속에서 사는 이주자들의 일상생활 내 문화적 활동은 언어변수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응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Lee, 2000). 예를 들어, 경축하는 명절이나 즐겨먹는 음식 등은 이주 전의 사회가치를 유지하는지 또는 이주 후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는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각 가정의 문화적응 수준은 양쪽 문화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으로써 주류문화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Lee, 2000; Santisteban & Mitrani, 2002).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정의 문화적응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이민가족 내의 가족의 다양성과 가정의 기능을 설명하고, 가족을 둘러싼 미시체계간의 상호 교류를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주동기와 정착지 환경이 다양하므로 특수한 역사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수민족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을 하나의 동일한 문화적응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Chun & Akutsu, 2002; Taylor,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응 양상을 언어관련 요인과 문화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들이 100년이 넘는 이주역사동안 중국사회 내에서

이주 전의 문화인 민족문화와 주류문화인 중국문화를 어떻게 통합하여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접변

개인의 발달적 측면에서 문화접변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생활습관, 신념 등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신념 등과의 접촉을 통해 통합되고 수정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접변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Chun, & Akutsu, 2002; Myer & Rodriguez, 2003; Phinney, 1990; Santisteban & Mitrani, 2002). Berry와 Sam(1997)은 문화접변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언어, 종교, 건강은 개인적 수준에서 문화접변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연령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문화접변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변인은 연대기적인 연령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민연령의 영향력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민시기의 연령이 어릴수록 문화접변의 과정이 유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Castro, 2003).

성별에 따른 문화접변의 정도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류문화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보고한다(Phinney, Ferguson, & Tate, 1997; Masson & Verkuyten, 1993; Watts, 1996). Verkuyten(1997)은 이러한 결과를 사회화 패턴에서의 성차로 설명하였다. 즉, 남성은 사회화과정에서 경쟁성이 강화되어지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인 배려의 측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학력에 따른 문화접변 정도의 차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와 민족문화의 보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hinney, 1990). 이는 높은 학력을 가진 이민자의 경우 학교나 직업현장 등에서 주류문화와의 왕래가 더 잦기 때문에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일 기회와 확률이 높으며, 동시에 민족의식을 보존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적응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도 문화접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주류문화에의 동화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Phinney, 1990). 그러나 성별과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문화접변의 정도는 연구들에 따라 그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 비록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높은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긍정적인 문화접변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기는 하나, 다른 연구들은 그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Castro(2003)는 특히 흑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문화접변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소수민족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그 요인 하나로서 문화접변과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영향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Lee, 2000).

## 3. 지역생태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접변

최근 들어, 이민자들의 문화접변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주류사회의 문화와 환경 등 지역생태학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이장섭, 1993; Castro, 2003; Chun & Akutsu, 2002). 주로 북미 문화권 위주로 수행되었던 소수민족들의 문화접변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권 이민자들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문화접변 양상과 적응결과 등은 기존의 북미 이민자들의 그것과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이장섭, 1993). 즉, 한국인들의 이질적인 문화인 서구 지역으로의 이주와 조선족의 중국이주처럼 같은 아시아문화권으로의 이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주류사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 예로써 미국에서 수행된 소수민족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인종차별이나 분리(segregation) 등에 대한 소수민족과 주류사회 성원들의 인식과 편견 등을 포함한다(Castro, 2003; Phinney, Madden, & Santos, 1998; Oskamp, 2000).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같이 주류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은 소수민족의 문화접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랜 이민역사 기간동안 민족자치주를 형성하여 살아온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변 양상은 그들만의 독특한 생태학적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주류사회의 지역생태학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4.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중국 조선족은 중국 내 55개의 소수민족 중 13번째로 큰 소수민족집단으로서, 약 203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97%의 조선족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의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다(임계순, 2003). 중국 조선족의 이주역사는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중국으로의 이주는 조선시대 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중국의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강제징용, 혹은 자발적인 망명의 형태로 지속되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때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민족문화는 이주이전 시대 즉, 조선시대 말 또는 일제 식민지시대 전후의 문화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국립민속박물관, 1998).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중국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중국 전체 조선족의 43%가 거주하는 중국 최대의 조선족 자치주이다. 최근 자치주 50주년을 맞은 연변의 중심, 길림성 연길시는 약 219만명의 인구 중 조선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다(임계순, 2003). 반면, 동북 3성 중 요녕성과 흑룡강성의 중심도시인 심양과 할빈은 연변지역과는 다른 환경적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심양은 북경, 상해, 천진에 이은 중국 4대 도시로, 요녕성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도시이다. 전체 도시인구 386만명 중 90%가 한족이며, 심양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는 약 8만여명으로 보고된다. 할빈은 중국 흑룡강성의 성도로 교육, 정치,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인구 257만명 중 조선족이 약 7만명에 불과하다(국립민속박물관, 1997, 1998). 따라서 이들 대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연변조선족과 달리, 한족 및 다른 소수민족들과도 빈번한 교류를 경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족은 중

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의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켜왔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의 변화에 편승하여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조선족들은 주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자녀들을 마을의 조선족 소학교에 보내며 민족언어를 계승해왔으나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인구유동과 타민족(특히 한족)과의 문화접촉으로 인해 민족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민족학교가 와해되는 등의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귀옥, 전희정, 박혜원, 원영미, 김영주, 박태수, 나은영, 2003).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연변과 같은 조선족 자치주보다는 대도시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지영, 2003; 조복희, 박태수, 한세영, 2004). 심양과 할빈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조선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족 젊은이들 중 60%가 공적인 장소에서 조선어사용을 포기하고, 또한 조선족 가정에서도 한어가 주요 대화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대도시 유치원이나 학전반 아동들의 90% 이상이 조선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다(이귀옥 외, 2003). 이처럼 대도시의 경우, 한족어와 한족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조선족 자치주에서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주류사회에 대한 동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키는 수준에 있어서 지역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지역과 대도시인 심양/할빈 지역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변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의 주류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이중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조선족의 민족성 유지와 중국 본토문화의 적응은 그들 자신 뿐 아니라 2세의 교육과 사회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지역생태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은 하위요인별 (가정내 언어, 가정외 언어,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로 지역에 따라(조선족 자치주와 대도시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은 하위요인별 (가정내 언어, 가정외 언어,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의 특성

중국 연길시, 심양시, 할빈시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총 1227명의 중국 조선족 성인 남녀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지역별로는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이 459명, 대도시인 심양과 할빈이 768명이었다. 조선족 자치주와 대도시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1) 연령

연구대상자 중 남자의 연령은 21세에서 65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30대의 비율이 연변과 심양/할빈 두 지역 모두에서 전체의 7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표집과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대상지역의 조선족 유치원과 소학교 학부형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세 집단으로 범주화한 결과, 연변은 30세 이하가 18명으로 4%, 31-40세가 309명으로 76%, 41세 이상이 80명으로 20%정도로 나타났다. 심양/할빈의 경우는 30세 이하가 10명으로 4%, 31-40세가 224명으로 77%, 41세 이상이 55명으로 19%정도로 나타나 두 지역간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여자의 연령은 25세에서 64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남자와 마찬가지로 30대의 비율이 연변지역에서는 77%, 심양/할빈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세 집단으로 범주화하였을 때, 연변은 30세 이하가 144%, 31-40세가 77%, 그리고 40세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 변		심양/할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자의 연령	30세 이하	18	4.4	10	3.5
	31~40세	309	75.9	224	77.5
	41세 이상	80	19.7	55	19.0
	합	407	100.0	289	100.0
여자의 연령	30세 이하	59	14.4	57	13.2
	31~40세	316	77.1	329	76.4
	41세 이상	35	8.5	45	10.4
	합	410	100.0	431	100.0
남자의 교육 수준*	초중이하	30	7.3	84	28.5
	고 중	158	38.5	118	40.0
	전 과	88	21.2	42	14.2
	대학이상	135	32.9	51	17.3
	합	410	100.0	295	100.0
여자의 교육 수준	초중이하	36	8.7	123	27.6
	고 중	159	38.6	174	39.0
	전 과	127	30.8	69	15.5
	대학이상	90	21.8	80	17.9
	합	412	100.0	446	100.0
남자의 직업	사무직	57	12.6	12	4.4
	기타	55	12.1	33	12.0
	운수, 장비운전	45	9.9	22	8.0
	전문직	37	8.1	7	2.6
	기업경영	34	7.3	35	12.8
	무직	26	5.7	39	14.2
여자의 직업	전업주부	56	12.3	145	35.6
	사무직	46	9.9	32	7.9
	판매직	45	9.9	11	2.7
	전문직	45	9.9	13	3.2
	기타	41	9.0	26	6.4
	교직	36	7.9	55	13.5
	합	405	100.0	749	100.0
가족 형태	핵가족	256	63.2	475	63.4
	확대가족	149	36.8	274	36.6
	합	405	100.0	749	100.0

\* 교육수준에서 초중은 중학교를, 고중은 고등학교를, 전과는 전문대를 각각 의미함.

이상이 9%였다. 심양/할빈의 경우에는 30세 이하가 13%, 31-40세가 74%, 41세 이상이 10%정도로 나타나 연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 교육수준

연변과 심양/할빈 두 지역 모두에서 남자의 교육수

준은 고중졸이 각각 39%와 4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교육수준은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연변의 경우는 대학이상이 33%였던 반면, 심양/할빈의 경우는 초중졸이 무려 29%의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여자 역시 고중졸이 연변과 심양/할빈 모두에서 각각 39%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연변의 경우 전과졸(31%)이, 심양/할빈은 초중졸(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 참여한 조선족의 경우,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심양과 할빈 등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 3) 직업

남자의 직업을 빈도순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변은 사무직이 57명(13%), 기타가 55명(12%), 운수, 장비운전기사 45명(10%), 전문직 37명(8%), 기업경영 34명(7%), 그리고 무직 26명(6%) 순으로 나타났다. 심양/할빈의 경우는 무직이 3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14%)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기업경영 35명(13%), 기타 33명(12%), 운수, 장비운전기사 22명(8%), 집에서 하는 잔업 18명(7%), 그리고 농업, 임업 등 17명(6%)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두 지역모두에서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변은 사무직 46명(10%), 판매직 45명(10%), 전문직 45명(10%), 기타 41명(9%), 그리고 교직 36명(8%)으로 비교적 다양한 직업 분포를 보였다. 심양/할빈은 전업주부가 145명(36%)이었고, 나머지 60% 정도의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유형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직 55명(14%), 사무직 32명(8%), 서비스직 27명(7%), 기타 26명(6%), 그리고 가내잔업 25명(6%) 순으로 나타났다.

### 4) 가족형태

연구대상자들의 가족형태를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분류해서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연변과 심양/할빈 두 지역 모두에서 각각 약 63%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의 부모님, 삼촌, 고모, 사촌 등과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은 각각 37%정도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문화접변, 남북한 방언여부, 모국어, 중국어 실력에 대해 응답케 하였다. 문화접변 척도는 Mendoza와 Martinez(1989)가 개발한 The Cultural Life Style Inventory를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Mendoza와 Martinez(1989)가 멕시코계 미국인 청소년과 성인의 문화접변 수준과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이나 Lee(2000)는 한인 이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한 바 있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문화접변 원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정내 언어요인, 가정외 언어요인,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사회적 관계와 활동 등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endoza와 Martinez(1989)는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준이  $r=.91$ (멕시코계 미국인)~ $r=.95$ (미국인)에 이른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접변 척도의 전체 문항을 원문의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족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27문항 중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관한 질문들은 서구문화중심이라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즉,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 등이 제외되었으며, 데이트할 상대의 민족에 관한 문항이나 결혼 상대자를 선택시 선호하는 민족 등은 본 연구대상이 기혼자이므로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20개 문항이 선택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사용언어와 관련된 질문의 경우, 1점은 모두 조선어, 2점은 거의 조선어, 3점은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씩, 4점은 거의 한어, 5점은 모두 한어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활동과 관련된 질문의 경우는 1점은 거의 모두 조선(인), 2점은 대개 조선(인), 3점은 조선(인)과 중국(인) 반반씩, 4점은 대개 중국(인), 5점은 거의 모두 중국(인)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주류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개의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내 언어요인(5문항), 가정외 언어요인(5문항),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4문항),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4문항) 등 네 개 하위요인이 나타났으며, 두 문항은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타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 신뢰도는 가정내 언어요인 Cronbach  $\alpha=.86$ , 가정외 언어요인  $\alpha=.82$ ,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alpha=.72$ ,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이  $\alpha=.74$ 였다.

3. 자료수집절차

본 조사는 2차에 걸쳐 수행되었다. 먼저 연변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조사는 2003년 3월 연길시 조선족 소학교 1개교와 유치원 5개소를 선정하여,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학생을 통해 배부된 설문지는 다음날부터 1주일여 걸쳐 회수하였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은 97%였다.

2차 조사는 심양과 할빈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에 실시하였다. 심양시 조선족 소학교 2개교와 유치원 3개소 그리고 할빈시의 조선족 소학교 1개교와 유치원 1개소를 선정하여, 부 또는 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의 절차는 1차 조사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은 96%였다.

본 자료수집은 모두 조선족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대상가정이 모두 조선족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한족가정도 있어 한어가 모국어인 경우가 일부 있었다<sup>2)</sup>. 이에, 본 연구는 이들 한족가정을 제외시키고 자 연구대상자와 배우자 모두가 조선족인 경우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4. 자료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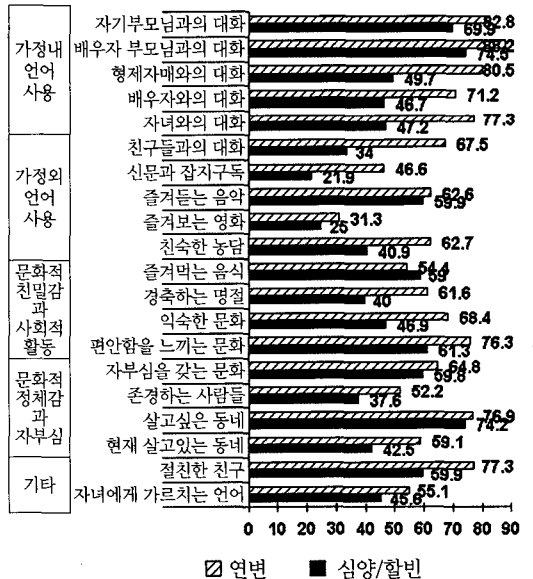
지역에 따른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어 사용과 조선족 문화활동의 정도를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연변과 심양/할빈 두 지역간에 문화적변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남북한 방문 여부에 따라 문화적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ANOVA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령과 중국어 실력, 문화적변 하위요인간에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1.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지역에 따른 문화적변 양상

연변지역과 심양/할빈 지역 조선족의 문화적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어 사용과 조선족 문화활동의 정도를 백분율로 알아보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이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족 문화를 보존하는 정도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연변지역의 조선족들은 심양/할빈 지역의 조선족들보다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변의 각 문항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변지역의 경우 가정내에서는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님과 의 대화는 90%가량이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10%가 되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림 1> 조선어 사용과 조선족 문화활동의 비율 (%)

- 1) 문화적변 20문항 중 요인으로 부하되지 않은 두 문항은 기술통계분석시 포함시켰으나 이후의 지역,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추리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2) 자녀의 모국어를 기준으로 조선어가 모국어인 가정이 전체의 86.4%였으며, 한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13.6%였다.



나 자신의 형제자매와 대화할 때 대부분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었고(80% 이상),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 역시 조선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70%이상으로 대부분의 연변 조선족은 가정생활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변지역과는 달리, 심양/할빈 지역의 조선족들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대화상대의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님세대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70% 가량의 응답자가 조선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한 반면, 배우자, 형제, 자녀들과의 대화시에는 조선어 사용비율이 50%, 한어 사용비율이 20%, 그리고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비율이 30% 가량으로 나타남으로써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가정외에서의 사용언어는 연변과 심양/할빈 두 지역 모두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정내보다 훨씬 떨어졌다. 연변의 경우,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주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 67%,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 사용한다는 약 27%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조선어로 대화를 나누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신문과 잡지구독은 주로 조선어가 47%, 반반이 25%, 한어가 28%였으며, 즐겨보는 영화 역시 조선어가 31%, 반반 35%, 한어가 33% 정도로 나타나 매스미디어의 언어는 조선어, 한어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이해가 잘되고 친숙한 농담은 주로 조선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63%). 한편, 심양/할빈의 조선족들은 가정의 언어사용 항목 중 즐겨듣는 음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낮은 조선어 사용비율(50%미만)을 보고하였다. 즉, 친구들과의 사용언어는 34%가 조선어, 33%는 반반, 33%는 한어라고 보고하였다. 신문과 잡지구독, 즐겨보는 영화의 경우는 23% 가량이 조선어를 선호하며 50% 이상이 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매우 높은 한어선호도를 보였다. 친숙한 농담의 경우는 조선어 비중이 41%, 반반 21%, 한어가 38%였다.

문화적 친밀감과 사회적 활동 문항에 있어서, 연변 지역 응답자의 54%가 조선음식을 즐겨 먹으며, 62% 정도는 조선명절을 지내고 있었다. 응답자의 7% 정도는 한족음식을 즐기고 약 10% 정도가 조선명절이 아닌 한족의 명절을 경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겨먹는 음식이나 경축하는 명절에 대해서는 조선문화와 중국문화

반반이라는 응답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약 38%, 29%). 심양/할빈의 경우도 응답자의 59%가 조선음식을 즐겨 먹고, 34%가 반반을, 7%가 중국음식을 즐겨먹는다고 보고하였다. 경축하는 명절로는 40%가 조선명절, 24%가 반반, 36%가 한족의 명절을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들이 오랜 세월동안 중국의 주류문화 속에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그 문화에 적응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민족문화에 대해 친밀함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주거실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선족만 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연변지역 응답자는 약 59%이며, 3/4의 응답자는 살고 싶은 동네가 조선족 동네라고 답하였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문화는 조선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5%) 반반이 약 24%, 한족 문화가 11% 정도였다. 심양/할빈 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6%가 조선족 동네라고 응답하였으며, 살고 싶은 동네는 무려 74%의 응답자가 조선족 동네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부심을 갖는 문화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응답비율과 비슷한 약 60%의 응답자가 조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주류문화 속에서도 조선족의 민족문화에 대한 정체감과 자부심을 지켜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친구관계를 물었다. 그 결과 연변지역 응답자의 77%, 심양/할빈지역 응답자의 60%가 절친한 친구들로 대개 조선족과 사귀고 있었다. 조선족과 한족 친구가 반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변이 19%, 심양/할빈이 26%였으며, 주로 한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약 4%와 14%로 나타나 대부분 조선족 친구와 사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주로 한족 친구를 사귀다고 대답한 비율에 있어서 심양/할빈의 경우가 10%가량 더 많았다.

본 연구대상의 중국어 실력은 연변지역의 경우, 절반정도인 47%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약간 잘한다' (22%), '매우 잘한다' (21%), '별로 못한다' (8%), '전혀 못한다' (1%)순으로 나타났다. 심양/할빈지역의 경우는 50%가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보통'

이라고 답하였고, 30%가 '매우 잘한다', 15%가 '약간 잘한다' 3%가 '별로 못한다', 그리고 약 2%가 '전혀 못한다' 순으로 답함으로써 연변의 조선족보다는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변과 심양/할빈 두 지역 간의 문화접변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연변지역과 심양/할빈 지역 조선족은 18개의 문화접변 문항 중 즐겨먹는 음식과 살고 싶은 동네의 두 문항을 제외한 16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심양/할빈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가정내 언어사용( $t=-9.29$ ,  $p<.001$ ), 가정외 언어사용( $t=-9.30$ ,  $p<.001$ ),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t=-8.11$ ,  $p<.001$ ),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t=-7.37$ ,  $p<.001$ )의 네 영역 모두에서 연변에 거

주하는 조선족보다 중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더 높은 동화정도를 보였다.

비록 두 지역은 문화접변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으나, 문화접변이 더 많이 나타나는 하위영역과 더 적게 나타나는 하위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두 지역 모두에서 가정외 언어사용(연변:  $M=2.47$ , 심양/할빈:  $M=3.04$ ),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연변:  $M=2.07$ , 심양/할빈:  $M=2.53$ ),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연변:  $M=2.07$ , 심양/할빈:  $M=2.46$ ), 가정내 언어사용(연변:  $M=1.76$ , 심양/할빈:  $M=2.35$ )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문화접변 양상에서의 영역별 유사성을 보였다. 또한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 사용하는 것이 3점이었는데 네 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문화접변 점수가 3점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 전반적으로 조선어와 조선족 문화를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문화접변 정도에 있어서의 지역간 차이(연변 대 심양/할빈)

	하위 영역	연 변	심양/할빈	t
		평균(SD)	평균(SD)	
가정내 언어사용	자기 부모님과 대화	1.63(1.01)	2.03(1.26)	- 5.64***
	배우자 부모님과 대화	1.52(.98)	1.92(1.32)	- 5.42***
	형제자매와 대화	1.75(1.07)	2.56(1.32)	-10.83***
	배우자와 대화	2.00(1.21)	2.65(1.34)	- 8.18***
	자녀와 대화	1.91(1.14)	2.57(1.23)	- 9.05***
	전체 평균	1.76(.89)	2.35(1.08)	- 9.29***
가정외 언어사용	친구들과의 대화	2.03(1.15)	2.99(1.29)	-12.72***
	신문과 잡지 구독	2.74(1.42)	3.55(1.32)	- 9.79***
	즐거워하는 음악	2.11(1.19)	2.25(1.17)	- 2.04*
	즐거워하는 영화	2.77(1.42)	3.37(1.35)	- 7.12***
	친숙한 농담	2.54(1.56)	2.95(1.43)	- 4.55***
	전체 평균	2.47(.98)	3.04(.97)	- 9.30***
문화적 친밀감과 사회적 활동	즐거먹는 음식	2.12(1.09)	2.18(.99)	- 1.08
	경축하는 명절	2.16(1.18)	2.87(1.38)	- 8.83***
	익숙한 문화	2.13(1.25)	2.71(1.40)	- 7.01***
	편안함을 느끼는 문화	1.87(1.18)	2.38(1.39)	- 6.36***
	전체 평균	2.07(.87)	2.53(.91)	- 8.11***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자부심을 갖는 문화	2.04(1.27)	2.34(1.32)	- 3.69***
	존경하는 사람들	2.27(1.14)	2.75(1.16)	- 6.85***
	살고 싶은 동네	1.83(.98)	1.91(1.17)	- 1.19
	내가 살고 있는 동네	2.08(1.11)	2.86(1.50)	- 9.39***
	전체 평균	2.07(.81)	2.46(.89)	- 7.37***

\*  $p<.05$ , \*\*\*  $p<.001$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접변 양상

연구대상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남북한 방문여부에 따라 문화접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서 <표 2>에서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조선족들의 문화접변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1) 연변지역 조선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하위영역별 문화접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가정내 언어사용은 교육수준에 따라 남(F=3.24, p<.05), 여(F=6.28, p<.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언어사용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역시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접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남: F=8.56, p<.001, 여: F=10.15, p<.001)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조선어보다는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남: F=10.06, p<.001, 여: F=14.89, p<.001), 북한방문 여부에 따라(t=-2.41,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선족으로보다는 한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F=6.64, p<.001, 여: F=10.60, p<.001).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한족과의 동화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라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2.03, p<.05),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보다는 확대가족인 경우에 조선족 문화에 대한 정체감과 자부심 수준이 높았다. 즉, 조부모와 부모,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감이 더욱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2) 심양/할빈지역 조선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하위영역별 문화접변

심양/할빈지역 조선족들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남북한 방문경험 등에 따른 문화접변의 차이는 연변지역 조

<표 3> 연변지역 중국조선족의 관련변수별 문화접변 차이

		가정내 언어사용	가정의 언어사용	문화적 친밀감과 사회적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남자학력	초중(N=30)	1.18	1.63	1.37	1.53
	고중(N=158)	1.60	2.32	1.92	2.10
	전과(N=88)	1.65	2.45	2.05	2.11
	대학이상(N=135)	1.67	2.65	2.21	2.30
		F= 3.24*	F= 8.56***	F= 10.06***	F= 6.64***
여자학력	초중(N=36)	1.23	1.82	1.42	1.50
	고중(N=159)	1.54	2.20	1.87	2.04
	전과(N=127)	1.65	2.56	2.07	2.19
	대학이상(N=90)	1.84	2.74	2.36	2.41
		F= 6.28**	F= 10.15***	F= 14.89***	F= 10.60***
가족형태	핵가족(N=256)	1.60	2.47	2.04	2.18
	확대가족(N=149)	1.60	2.29	1.93	2.01
		t= .02	t= 1.73	t= 1.26	t= 2.03*
남한방문 여부	유(N=325)	1.57	2.23	2.06	2.05
	무(N=91)	1.64	2.45	1.98	2.12
		t= .65	t= 1.79	t= -.82	t= .69
북한방문 여부	유(N=309)	1.65	2.50	2.16	2.19
	무(N=104)	1.62	2.38	1.94	2.09
		t= -.34	t= -1.11	t= -2.41*	t= -1.10

\* p<.05, \*\* p<.01, \*\*\* p<.001

〈표 4〉 심양/할빈지역 중국조선족의 관련변수별 문화접변 차이

		가정내 언어사용	가정의 언어사용	문화적 친밀감과 사회적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남자학력	초중(N=84)	2.06	2.88	2.35	2.13
	고중(N=118)	2.25	3.09	2.55	2.47
	전과(N=42)	2.55	3.31	2.67	2.93
	대학이상(N=51)	2.82	3.33	2.72	2.93
		F= 5.41**	F= 2.79*	F= 1.81	F= 11.55***
여자학력	초중(N=123)	2.21	2.78	2.42	2.26
	고중(N=174)	2.19	2.89	2.37	2.31
	전과(N=69)	2.65	3.23	2.71	2.69
	대학이상(N=80)	2.66	3.26	2.78	2.71
		F= 6.17***	F= 5.71**	F= 5.85**	F= 7.99***
가족형태	핵가족(N=475)	2.34	3.01	2.53	2.46
	확대가족(N=274)	2.36	3.10	2.54	2.47
		t= -.18	t= -1.15	t= -.23	t= -.04
남한방문 여부	유(N=473)	2.48	3.16	2.57	2.44
	무(N=229)	2.07	2.80	2.44	2.53
		t= 4.68***	t= 4.47***	t= 1.81 <sup>+</sup>	t= -1.30
북한방문 여부	유(N=668)	2.35	3.05	2.54	2.46
	무(N=27)	2.52	2.91	2.38	2.78
		t= -.81	t= .71	t= .85	t= -1.85 <sup>+</sup>

<sup>+</sup> p<.10, \* p<.05, \*\* p<.01, \*\*\* p<.001

선족들의 그것과 다소 다르다(표 4). 먼저, 가정내 언어 사용은 교육수준에 따라(남: F=5.41, p<.01, 여: F=6.17, p<.001), 남한방문 여부에 따라(t=4.68,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심양/할빈 지역의 조선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내에서 중국어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언어사용도 가정내 언어사용과 비슷하게, 교육수준교육수준에 따라(남: F=2.79, p<.05, 여: F=5.71, p<.01), 남한방문 여부에 따라(t=4.47,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의 경우, 남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자의 교육수준에 따라(F=5.85, p<.01), 남한방문 여부에 따라(t=1.81, P<.1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은 교육수준에 따라(남: F=11.55, p<.001, 여: F=7.99, p<.001) 차이가 있어 남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국문화에 대한 동화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방문 여부에 따라(t=-1.85,

P<.10),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중국문화에 대한 더 높은 동화정도를 보고하였다.

〈표 5〉는 연구대상자의 중국어 실력과 연령, 문화접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sup>3)</sup>. 연변과 심양/할빈 지역 모두에서 연구대상의 중국어 실력이 문화접변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r=.29~.43, p<.001)을 보였다. 이는 중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가정 내에서 뿐 아니라 가정 밖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중국 문화에 보다 많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친밀감과 정체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은 심양/할빈 지역에서만 가정내 언어영역(r=-.20, p<.001), 가정의 언어영역(r=-.17, p<.05) 문화접변과

3) 연구대상의 중국어 실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하나로 측정되었으나, 문화접변에서의 언어관련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t-test와 ANOVA를 이용한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제외하였고 전체적인 관계의 경향성만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중국 조선족의 문화접변과 기타변수의 상관관계

	가정내 언어사용	가정외 언어사용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중국어 실력	연 령
가정내 언어사용		.65***	.39***	.43***	.41***	-.20***
가정외 언어사용	.60***		.53***	.47***	.43***	-.17**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50***	.67***		.62***	.30***	-.04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40***	.58***	.74***		.29***	.08
중국어 실력	.38***	.42***	.42***	.35***		.04
연 령	-.01	.06	.03	.04	.07	

\*\* p&lt;.05, \*\*\* p&lt;.001

Note: 대각선 좌측하단은 연변지역, 대각선 우측상단은 심양/할빈지역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조선어보다는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의 문화접변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박성연 외 2인, 2000; 박성연, 도현심, 2001), 심양과 할빈 등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연구에서 배제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심양, 할빈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조선족 부모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문화접변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일상대화시 사용하는 언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참여정도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민족어와 민족문화의 보존에 더 적극적인 반면, 심양/할빈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더 동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심양/할빈의 경우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대화상대의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도시의 특성에 의해 포래세대나 자녀세대의 경우 한족들과 더 잦은 왕래를 할 기회가 있고 그로인해 한어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자녀세대와의 한어사용은 자녀들로

하여금 중국사회의 주류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론은 연변지역 조선족들이 가정내에서 자녀와의 대화시에만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 정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약 20% 정도)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정외 언어의 경우도, 대도시에서 더 많은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주변의 친구들 역시 중국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양/할빈 지역의 조선족들이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 즐겨듣는 음악과 영화 등 대중매체 접촉에서 한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심양/할빈 지역이 조선어 매체를 접촉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한족 친구를 사귀다고 대답한 비율에 있어서 심양/할빈이 연변보다 10% 가량 더 많았던 결과는 대도시에서 한족과 더 빈번한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조선족 자치주라는 연변의 지역적 특수성과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동화정책을 동시에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변지역은 조선족 자치주라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보다 조선어와 조선족 문화활동의 비율이 높고 민족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심양/할빈 등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민족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것에 상대적 어려움을 보였는데, 이는 한족과의 더 많은 교류와 접촉이 있는 대도시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심양/할빈의 경우는 도시 인구의 90%가 한족이기 때문에(국립민족박물관, 1997,

1998), 그들의 문화접변 양상은 연변지역의 조선족과는 달리 민족문화와 주류사회의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접변에 있어서의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이민자들의 문화에 대한 적응을 연구하는 데 있어 지역생태학적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과 민족문화의 보존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민족적 특성과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주류문화의 정치경제적 특성, 민족문화와 주류문화간의 관계 등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섭, 1993).

둘째,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생활측면에 따라 빠르게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쉽게 수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언어는 가정내 언어보다 중국어에 빠르게 동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 지역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언어의 경우 한국어 매체를 접촉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양/할빈과 같이 한족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는 대도시에서는 가정의 언어에서 민족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가 그들의 민족어 사용의 관건이 되며, 이는 민족어와 민족문화가 보존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 조선족들은 100년이 넘는 오랜 이민역사를 지녔음에도 대체적으로 중국문화와 중국어보다는 민족문화와 민족어를 보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지역별, 영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족간의 대화를 나눌 때 대체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관계 역시 주로 조선족과 맺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감과 친밀감 또한 조선족에 가까운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성연 등(2000)의 연구에서 연변 조선족 어머니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에서 과반수 이상이 한어라고 응답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학교를 선정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3-12세인데 비해 박성연 등(2000)의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의 조선족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정내의 언어사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비

록 중국 조선족의 가정내 사용언어에서의 문화접변 양상은 연변과 심양/할빈의 지역적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이주한 한국인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민족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7-10년 된 미국이민가정이 71%정도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비해(Min, 1995, 1998), 이주 3-4세대 된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 사용비율이 50%-9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확고한 민족문화유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민족어의 유지와 더불어, 연변지역과 심양/할빈 지역 모두에서 응답자의 60%가 조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었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선족이라고 답하는 등 민족에 대한 강한 애착감과 응집의 바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조선족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임채완과 김경학(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비록 대도시에 사는 조선족들이 연변지역의 조선족들보다는 중국문화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민족적 자부심이나 긍지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의 높은 민족정체성의 경향은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진입하는 데에 겪는 언어적 한계 때문으로 설명한다(Faver & Lee-Shin, 2000).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높은 민족적 긍지와 민족정체성은 언어적 어려움 보다는 광복이전까지 겪었던 민족 차별과 일제의 강제 동화정책으로 인한 민족의식의 각성, 타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택한 경제생활 등의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이유로 설명된다(임채완, 김경학 2002). 또한, 중국에서 태어나고 이주 역사가 긴 조선족 3-4세대가 강한 민족적 애착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소수민족들에게 자치주를 허용하고 그들의 민족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주류사회 중국의 정치, 사회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접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특히 교육수준에 따라서 문화접변의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내와 가정외에서 한어사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 영역에서도 중국화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서구사

회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Phinney, 1990). 본 연구의 결과는 한족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한족문화에 대한 접촉과 동화 정도가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한족 사회에의 적응 정도가 높아진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보다 교육적 혜택을 많이 받게 될 젊은 세대의 경우 한족과의 문화적 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이주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령과 문화집변 수준을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민족어와 문화를 보존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새로운 주류사회의 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Castro, 2003).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과 문화집변간의 그러한 부적관계는 중국 조선족의 경우 대도시의 조선족들에게만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도시의 빠른 변화와 그로인한 세대간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연변의 경우는 이민 2-3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족 자치주으로써 민족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집변과 연령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집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연대기적인 차이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민세대의 차이와 지역적 특성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들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집변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민자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민족적 특성, 주류사회의 특성 등 전반적이고 맥락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에 이주한 한민족은 지역에 따라 이주역사, 이주정책, 이주동기, 이주사회의 구조적 특징이 다르므로 이주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특징들은 이민자들의 민족정체감이나 문화적 특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도 혹은 이주사회와의 관계 형성의 중요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구체적인 문화집변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의 문화집변 현상이나 민족정체성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들은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생태학적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북미와 아시아권과 같

이 서로 다른 주류사회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집변을 비교연구한다면 더욱 뚜렷한 주류사회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연길시, 심양시, 할빈시 등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집거촌이라 할 수 있는 동북 3성의 3개 도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연구대상이 유치원 혹은 소학교 아동의 부모로 한정되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즉,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30대에 편중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연령의 편향성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집변의 차이분석에서 연령 집단간 차이검정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보다 정확한 문화집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넓은 연령범위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문화집변 양상에 있어서의 지역간 차이를 조선족 자치주와 대도시라고 하는 지역생태학적 특성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직접적인 자료분석을 통한 검정이 아닌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추론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심양과 할빈 두 지역을 따로 분리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문화집변 양상과 지역간 차이의 이유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록 중국 조선족의 민족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민족문화의 보존양상은 민족성유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집단정체성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 주류사회에의 동화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이주사회 전체 통합에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중국 조선족들이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사회의 변화로 조선족이 도시와 한국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선족의 마을이 붕괴되고 있으며(허청선, 허광호, 1995), 한족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녀를 한족 학교로 진학시키므로써 조선족 학교가 감소하고 있다(고지영, 2003). 이러한 현상

이 계속될 때 다음세대 청소년이나 아동은 민족정체성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예컨대, 중국 조선족의 문화접변 현상은 개인의 적응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조선족 집단의 전체적인 유지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들 변수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주요 과제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한민족 고유의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중국사회 내에서 한민족의 얼을 곳곳이 이어갈 뿐 아니라 남북한의 교류확대에 일정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중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위치를 찾고 모국의 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정체감을 느낄 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제공하고 조선족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모국과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국 조선족들의 현재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과 민족문화의 보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고지영(2003).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민속박물관(1997).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0.
- 국립민속박물관(1998).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4.
- 김광정(1996). 재미교포의 적응형태, 해외 한민족과 차세대. SAT II 한국어 진흥재단 주최,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1996.7. 19-22, Omni Los Angeles Hotel.
- 김신일(1996). 해외차세대를 위한 민족정체성 교육. 해외 한민족과 차세대. SAT II 한국어 진흥재단 주최.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1996.7. 19-22, Omni Los Angeles Hotel.
- 박성연, 김미경, 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159-175.
- 박성연, 도현심(2001).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과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23-136.
- 윤복남(1997). 캐나다 거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응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인암교육학연구*, 3(1), 21-69.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원영미, 김영주, 박태수, 나은영(2003). 중국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환경. 부산: 서림출판사
- 이장섭(1993). 해외한인의 문화접변. *민족과 문화*, 1, 77-97.
- 이현정(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63-105.
- 임계순(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서울: 현암사.
- 임채완, 김경학(2002).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0(1).
- 조복희, 박태수, 한세영(2004).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 심양, 할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10.
- 허청선, 허광호(1995).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특성과 위기에 대한 재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1, 60-80.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erry, J. W. (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pp. 15-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 Sam, D. (1997). Acculturation



-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Vol. 3, pp. 291-326). Boston: Allyn and Bacon.
- Buriel, R. (1993). Child-rearing orientations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The influence of generation and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87-1000.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ho, B., Han, S., & Lee, J. (2005). A study on Korean-Chinese children's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to the mainstream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6, 87-102.
- Chun, K. M., & Akutsu, P. D. (2002). Acculturation among ethnic minority families.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95-12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ll, C. G., & Pachter, L. M. (2002). Ethnic and Minority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 (pp.1-2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rver, J. M., & Lee-Shin, Y. (2000). Acculturation and Korean-American Children's Social and Play Behavior. *Social Development*, 9, 316-336.
- Gorden, M. (1978). *Human nature, class, and ethnic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arwood, R., & Leyendecker, B. (2002). Parenting Among Latino Families in the U. 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pp.21-4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urh, W. M., & Kim, K. C. (1984).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Madison,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Lee, H. S. (2000). *Parental efficacy and practices among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the US: Relations with family functioning, familism, and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NY.
- Masson, C. N., & Verkuyten, M. (1993). Prejudice, ethnic identity, contact and ethnic group preferences among Dutch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56-168.
- Mendoza, H., & Martinex, L. (1989). The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In A. Baron, Jr.(Ed.), *Explorations in Chicago psychology*(pp. 71-82). NY: Holt.
- Min, P. G. (1995).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Newbury Park, CA: Sage.
- Min, P. G. (1998). Korean American families. In R. L. Taylor(Ed.), *Minority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A multicultural perspective* (pp. 252-295). NJ: Prentice-Hall.
- Myers, J. F., & Rodriguez, N. (2003). Acculturation and physical health in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In K. M. Chun, P. B. Organista, and G. Marin.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Noels, K. A., & Clement, R. (1996). Communicating across cultures: Social determinants and acculturative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 of *Behavioral Science*, 28, 214-228.
- Oskamp, S. (2000). Multiple paths to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S. Oskamp(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pp. 1-19). Mahwah, NJ: Erlbaum.
- Patel, N., Power, G., & Bhavnagn, P. (1996). Socialization values and practices of Indian immigrant parents: Correlates of Modernity and acculturation. *Child Development*, 67, 302-313.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Phinney, J. S., Ferguson, D., & Tate, J. (1997). Intergroup attitud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causal model. *Child Development*, 68, 955-969.
- Phinney, J. S., Madden, T., & Santos, L. (1998). Psychological variables as predictors of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s among minority and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 937-953.
- Rogler, L., Cortes, D., & Malgady, R. (1991).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Hispanics: Convergenc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6, 585-597.
- Santisteban, D. A., & Mitrani, V. B. (2002). The influence of acculturation processes on the family.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pp. 121-1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ylor, D. M. (1987). Social psychological barriers to childhood bilingualism. In M. Homel & S. Aarsonson(Eds.), *Childhood bilingualism: Aspects of linguistic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pp. 183-196). Newbury Park, CA: Sage.
- Verkuyten, M. (1997). The structure of ethnic attitudes: The effects of target group, region, gender, and national identity.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3, 261-284.
- Watts, M. W. (1996). Political xenophobia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Threat, racism and ideology among East German youth. *Political Psychology*, 17, 97-126.

(2005년 2월 28일 접수, 2005년 6월 14일 채택)